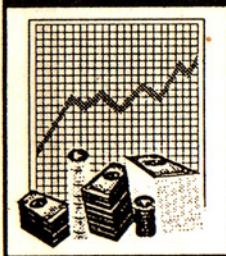


經濟人 手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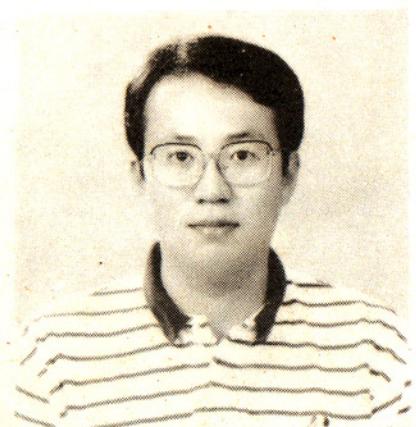
한국인과 한국기업의 카나다 進出戰略

김영수 (경제학박사)

캐쉬 박치기를 해라(?)

필자가 캐쉬박치기를 권하는 대상은 만불짜리 자동차를 사는 것에서 시작하여, 10만불짜리 집을 사는 것에서, 1천 만불짜리 호텔을 사는 것에서 심지어는 2-3억불짜리 공장을 사는 것까지 가격의 고하를 불문한다. 하여간, "선금융, 후프로젝트" 이것을 잊지말기를 당부한다. 그것도 생각이 나지 않으면, 김모라는 사람이 무슨 신문에 칼럼을 썼는데, '카나다에서 돈벌려면 무슨 박치기를 하라고 했다'는 것이라도 꼭 기억하기 바란다.

캐쉬가 힘이 있는 이유는 사실, 위에서 말한 이런 것 말고도 여려개가 있다. 우리 그 중에 하나만 더 이야기하고 넘어갈려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複利의 힘'이라는 것이다. 이 '複利의 힘'이라는 것은 정말로 무서운 것이다. 보통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라던가,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진다'던가, '이자값다 볼일 다본다'던가 하는 소리가 들리면, 누군가 바로 이 '複利의 힘'에 짓눌려서 작살이 나고 있다고 생각하면 틀림이 없다. 원금은 이자를 낳고, 이자가 또 이자를 낸다. 그리고, 그 새끼이자가 새이자를 또 낳고, 그동안 이전의 원금과 이전의 이자도 계속하여 새끼를 낸다... 처음 한두달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지만, 4-5년 사이에 상대를 아주 떡을 만들 수 있는



것이 바로 복리의 힘이다. 연 7%만 되어도 10년이 지나면 2배가 되는 힘. 연 30%이면 3년이면 2배가 되는 무서운 힘.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만 하자. 얼마 전까지만 하여도, 도널드 트럼프나 라이흐만 브라더즈가 뉴욕 맨하탄의 빌딩 한두어개를 가지고 세계에서 제일 부자라느니 모델 출신 청이 몇 이라느니라고 여간 시끄럽게 굽지 않던 것을 기억할 것이다. 뉴욕 맨하탄의 빌딩하나만 가지고도 그러니, 맨하탄 전체가 자기 것이라면, 정말 그 재산의 규모는 어마어마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불과 얼마 되지 않는 돈(수백만불)에 이 황금보다 더 귀한 땅덩어리를 미국에 판 화란인들이 참 바보스러워 보일 수도 있다. 과연 그럴까? 절대로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당시로도

싼가격으로 보이던 그 수백만불밖에 안되는 돈을 은행에 넣어複利로 굴렸으면, 그 액수는 지금, 맨하탄 전체를 서너개도 사고도 남기 때문이다. 즉, 아무리, 부동산이 어찌고 저찌고 깨불어 대도, 또, 무슨 딜레이킹 기교가 어찌고 저찌고 하여도, 이 '複利의 힘' 앞에는 무릎을 끓게 되어있다는 소리이다. 그런데, 이 복리의 힘이라는 것은 오로지 현금력에만 해당이 된다. 즉, '행사할 수 있지만 참고 기다리는 현금력'에 대하여서만 이 복리의 힘이라는 축복이 주어지는 것이다. 사실, '권력'도 그렇고, '무력'도 그렇다. '있지만 쓰지 않고 기다리는' 묘미를 터득하지 못하는 사람은 크게 성공하지 못한다. 권력도 오래 유지할려면, 엄청난 권력을 誇示만 하여야지, 실제로 그 권력을 쓰면, 금방 망하게 되어있다. 큰 주먹은 원래 그 무력을 가지고만 있지 쓰지를 않는다. 무력을 자주 휘두르는 놈들은 피래미 잔강패놈들인 것이다. 현금력도 그렇다. 쓸 수 있지만 안쓰는 사람. 결정적인 순간을 조용히 기다리는 사람이 결정적으로 승리하게 되어있다. 그리고, 만약, 그 결정적인 순간이 영원히 오지 않더라도, 즉, 아무 것도 하지 않고 가지고만 있어도 현금력에는 이 복리의 힘이라는 엄청난 축복이 따라오게 마련이다. 그래서 필자가 권하는 자산의 운영방법중의 하나가 재산의 상당부분을 Certificate of Deposit이나 정부의 公債의 형태로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하여 꾹 참고 기다리면서 이 '複利의 무서운 힘'을 가만히 타고 있다가, 막상 乾坤一擲의 순간이 와서 '出兵'하여야 될 결정적인 시기가 오면, 또, '모세야! 이제 산을 내려가거라!'하는 소리가 들리면, 또 '小林十八銅人을 마침내 꺾고 아버님의 원수를 찾아 僧門을 나설 때'가 되면, 이렇게 忍耐로서 가꾸어온 현금성 자산에 대하여서는 이를 담보로 은행이 우대금리보

다도 낮은 보통 장사하는 사람이 돈을 끌 때에 상상도 못하는 좋은 이자로 100% 전액 융자를 하여 주니, 바로 이것 때문에, 일이 덕쳐서 급히 동원하는 경우보다 금융 비용을 또 25% 정도 아낄 수가 있다. 거기서 아끼는 이자만 하더라도, 몇년동안 쌓아온 약올라가면서 참고 기다리던 억울함에 대하여서는 일거에 한풀이를 할 수 있다. 거기다가, 필자가 위에서 말하던 '혈값현상'을 이용하고, 이것 저것 '헛독점 깨기'니 무어니 십자포화를 걸고... 어? 이것 쉽잖아?

캐쉬파워에 관하여는 이쯤 설명하면 모두들 웬만큼 이해가 갔으리라 믿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하여야 이 무서운 "현금력"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가를 논의하며, 이 소단락을 마치자.

이처럼, "캐쉬파워"란 것은 돈을 벌거나, 재산을 모을려면 이렇게 중요한 것인데, 우리 한국인들은 이 캐쉬파워를 잘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 앞에서도 이야기하였지만, 우리 한국인은 아마 수천년 농경문화에 젖어있어서, 금전관계도 친인척관계의 연장선상에서 파악하고 있어서인지도 모르겠다. 또, 한국은 해방후 지금까지, '고인플레'라는 성장형 경제환경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물가가 오르는 만큼, 앓아서 그대로 당하는 것이라는 이유있는 피해의식이 깊어서 그런 지도 모르겠다. 또, 원체 많은 사람이 바글바글 모여사니 혈값과 제값의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아서, 현금력이 그다지 엄청난 파워가 없어서 그런지도 모르겠다. 이유가 어쨌든 간에, 좌우지간, 한국분들에게 이 "캐쉬파워"에 대해 충분히 이해를 시켜드리기가 무지하게 어렵다. 이 캐쉬파워의 무서움을 이해시키기 어려운 것은 일반 개인들의 경우 뿐이 아니라, 큰 기업을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이다. <다음호에 계속>